

연변대학

교육 · 인재 · 기술 3 박자로 변강 발전 이끈다



“연변대학은 우리 당이 비교적 일찍 동북 변강에 배치한 ‘국문대학’(国门高校)이며 길림성 소속 대학 가운데서 유일한 ‘쌍일류’ 건설 대학으로서 졸업 당을 위해 인재를 양성하고 국가를 위해 인재를 육성하는 초심과 사명을 굳건히 지켜왔다.”

연변대학당위 서기 두에는 장기적인 발전 과정에서 연변대학은 교육으로 변강을 공고히 하고 인재로 변강

을 진흥시키며 과학기술로 변강을 강화하고 산업으로 변강을 부유하게 하며 학술로 변강을 지키고 문화로 변강을 윤택하게 하는 고품질 발전의 길을 걸어왔는바 변강지역 교육과 발전의 중요한 역량으로 자리매김했다고 말했다.

최근 몇년간 연변대학은 고품질 당 건설을 선도로 하여 사업의 고품질 발전을 전면적으로 추진해왔다.

인재 양성 면에서 연변대학은 지속적으로 모식을 최적화하고 학과·전공 일체화 건설을 강화했다. 이와 동시에 일류 학과 건설, 인재 양성의 질, 과학기술혁신과 사회봉사 능력 등 6대 제고 공정을 기획 실시하고 지역국별학(区域国别学), 문화 전승과 산업 발전, 현대 특색 농업 등 5대 특색 교수준 학과전문군을 구성했다.

과학연구와 인재대오 건설에서 학

교는 장백산특산연구원, 두만강지역 지속가능발전연구원 및 동북 최초 변강(흥변부민) 연구원 등 과학연구기구를 설립하여 국가 고급 인재가 선두하고 길림성 ‘장백영재계획’ 등 성급 인재가 받쳐주는 317명의 교수준 인재대오를 구축했다. 이 밖에도 한국대학과의 중의합작교육기구 설립을 추진하여 강국건설과 길림의 전면 진흥을 위해 지속적으로 역량을 축적하고 있다.

다음 단계에 연변대학은 <길림성 고등교육 3년 난관공략 계획>에 초점을 맞추고 길림성 현대화 대농업, 생태보호, 흥변부민, ‘광역두만강개발계획’(大图们倡议) 등 전략과의 접합점을 찾아 국내외 교류 협력을 심화함과 아울러 전략적 신흥산업과 미래산업에 시급한 학과 전업을 과학적으로 배치함으로써 표적화로 뛰어난 창의적 인재를 집중 육성하게 된다. 또한 성외에 연구원 설립을 배치하고 선두기업, 교수준 대학과 산업-교육 융합 혁신체를 구축하며 형제 대학과 연합하여 길질(吉浙)생물의약간강산업연맹을 구성할 계획이다. 나아가 학교간, 지역간 자원 통합 상호 연계·소통을 강화함으로써 교수준 협력 증량을 키워 ‘강국건설에 연변대학은 무엇을 할 것인가’, ‘동북 진흥에 연변대학은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시대적 과제를 실질적으로 답하게 된다.

/ 길림일보

멋지다!

운-20 비행기 타고 대학교 가는 신입생들



공군 신입 비행교육생들이 운-20 비행기를 타고 학교에 도착 보고를 하러 갔다. 이는 공군이 4년 연속 ‘공중 제1수업’을 개설한 것이다.

8월 1일부터 2일까지 공군은 여러대의 운-20 비행기를 리용하여 심양, 석가장, 제남, 남경, 장사, 성도의 6개 탑승장에서 2025년 새로 모집한 비행교육생을 공군항공대학에 집중 운송했다.

호북, 호남, 광둥, 광서, 해남에서 온 300여명의 신입 비행교육생들이 화남 모 군용 공항에 집합하여 출정했는데 모든 교육생의 손에는 운-20 전용 탑승권이 들려있었다. 이로써 그들은 푸른 하늘을 향한 새로운 려정을 시작했다. 올해 공군은 최초로 교육생 학부모 대표를 초청하여 신입 비행교육생과 함께 운-20에 오를 수 있게 했다.

승무원들은 운-20 기내에 특별한 설계를 했다. 공군항공병 모 부의 장항은 “화물칸은 완전전투수송구조로서 2단 바닥자를 배치하여 모든 비행교육생들이 비행기에 오르자마자 진한 전투미를 느끼게 했다. 그들이 원대한 뜻을 품고 충성스

러운 군혼을 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비행기가 리륙한 후와 착륙하기 전 운-20 승무조는 공군 특유의 방식으로 공중대화를 하면서 신입 비행교육생들에게 축복을 전했다. “하늘은 영웅이 성장하는 곳이고 비행은 무한히 영광스러운 사업이다. 교육생들의 비행 생애 첫 항로를 밝히는 데 함께할 수 있어 다행이다. 오늘부터 우리 함께 날아올라 수많은 가정의 등불을 지켜주고 우리의 청춘으로 시대의 중임을 짊어지자.”

신입 비행교육생들은 도착 보고를 한 후 두달 동안의 입대교육훈련을 받게 되며 사상정치교육과 관련 군사훈련과목을 완성하고 지방 청년으로부터 혁명군인에로의 전변을 완수하게 된다. 비행교육생의 학습과 훈련은 주로 기초교육, 항공리론교육과 비행훈련 세 단계로 나누어지는데 첫 2년에 기초교육과 항공리론교육을 마치고 이후 초등교육비행기, 고등교육비행기 등 각 기종의 비행 훈련에 들어간다.

/ 인민넷 - 조문판

여름철 미성년자 인터넷 환경 정돈 전문행동 전개

미성년자의 인터넷 보호를 강화하고 양호한 인터넷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근 중앙인터넷안전및정보보호위원회 판공실은 통지를 발표, 전국적인 범위에서 2개월간의 ‘청량·2025년 여름철 미성년자 인터넷 환경 정돈’ 전문행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번 전문행동은 각종 새로운 정황과 새로운 표현에 초점을 맞추어 인터넷침해행위 실시, 위법불량정보 은폐 전파, 오프라인 위험활동 참여 유도, 미성년자의 형상을 리용한 리악 도모 등 4개 면의 문제를 정돈하게 된다. 여기에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절판된 굿즈(周边), 스타 굿즈, 무료학습 파트너 등 명목과 과몰입 등 악성 위법행위를 실시하며 카드, 이야기, 애니메이션 등 미성년자가 즐기는 새로운 매개체, 새로운 수법을 빌어 인터넷 불량 언어를 조작하고 불량한 허위 문화를 포장, 미화하며 불건전한 가치관을 고



취하고 미성년자의 심신건강을 해치는 등이 포함된다.

중앙인터넷안전및정보보호위원회 판공실 해당 책임자는 “전문행동을 전개하는 것은 인터넷 공간을 정화하고 미성년자의 건강한 성장을 보호하는 유력한 보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동시에 인터넷안전및정보화부문은 3가지 면의 정황에 중시를 돌리게 되는데 미성년자 모식의 사용 정황 및 내용 건설에 존재하는 문제, 아동지능설비의 내용 안전 및 기능 규범, AI 기능이 미성년자 영역에서 부당하게 응용되고 중독을 유도하는 문제 등이다. / 신화사

공립유치원 학령전 1년 보육교육비 면제

국무원 판공청은 최근 <무료 학령전 교육을 점차 시행할 데 관한 의견>을 인쇄 발부하여 학령전교육의 보급과 보편적 혜택, 안전, 량질의 발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습근평 새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사상을 지도로 하고 20차 당대회, 당중앙 20기 2차, 3차 전원회의 정신을 깊이 관철하며 당의 교육방침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인민대중이 시급하게 필요로 하고 바라는 바에 초점을 맞추고 더불어 보급과 보편적 혜택 강화, 안정적이고 질서 있는 추진, 정부 투자 증대, 경비 합리적 분담의 원칙에 따라 점진적으로 학령전교육 보육교육비를 면제하고 교육비를 효과적으로 낮추며 기본공공교육 봉사 수준을

제고하여 인민이 만족하는 교육을 잘 실시해야 한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하였다. 2025년 가을학기부터 공립유치원 학령전 1년의 원내 아동 보육교육비를 면제한다. 면제되는 보육교육비 기준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및 그 교육, 가격 주관부문이 비준한 공립유치원 보육교육비 징수 기준(식비, 숙박비, 잡비 등은 포함되지 않음)에 따라 집행한다. 교육부문이 비준하여 설립한 민간유치원에 재학중인 해당 연령 아동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의 같은 유형 공립유치원의 면제 수준을 참고하여 그에 상응하게 보육교육비를 감면한다. 민간유치원 보육교육비가 면제 수준을 초과하는 부분은 유치원에서 규정에 따라 계속 원내 아동 가정

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보육교육비 면제로 인해 유치원 수입이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부문이 보육교육비가 면제된 원내 아동수, 소재지 보육교육비 학생당 실제 징수 수준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치원에 보조금을 지급한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제기하였다. 국가가 통일적으로 시행하는 보육교육비 면제 정책을 기반으로 각 성은 실정에 결부하여 가정경제에 곤란한 아동, 고아, 장애아동 등 군체의 지원 정책을 더욱 공고히 하고 시행하며 최저 보장을 잘 지원하는 것을 격려해야 한다. 동시에 <중화인민공화국학령전교육법>을 착실히 리행하고 기본 보장, 보편적 혜택 보장을 고수하며 학령전교육 투입 기제를 한층 더 완비

해야 한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요구하였다. 각 성에서는 성급 총괄 역할을 발휘하여 사업 기제를 완비하고 책임 분공을 명확히 하며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제정하고 해당 지역에서 이미 시행중인 학령전교육 지원 정책과 잘 연계해야 한다. 지방 각급 재정, 교육 부문은 일상적 감독을 강화하고 자금 보장과 사용 관리를 강화하며 제때에 정액의 자금을 지급하여 유치원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하는 동시에 교원의 임금 체납을 엄금해야 한다. 지방 각급 교육부문은 감독관리 책임을 엄격히 리행하고 유치원 운영 행위를 규범화하며 원내 아동의 심신건강을 실질적으로 지켜주어야 한다.

/ 중앙텔레비전방송뉴스

중소학교 인공지능 계몽 새 교재 출범

인공지능이 미래에 깊은 영향을 미칠 때,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 기술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대처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은 교육 분야의 관심 방향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인공지능교육> 계열 교재가 개발되었다.

교재는 교육부가 발표한 <중소학교 인공지능 교양교육지침(2025년판)>과 <중소학생 생성식 인공지능 사용지침(2025년판)> 등 문건 요구에 부응하여 중소학생 인공지능 교육을 촉진하는바 탄탄한 내용 설계, 전

문적인 연구개발 및 보편적인 교육 적합성을 통해 1학년-6학년 학생들이 인공지능 기술을 더 잘 리해하고 인공지능 계몽을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계열 교재는 6권의 교과서, 48

개의 생활화 주제 및 ‘실제에 부합되는’ 서술을 통해 추상적인 인공지능 기술을 쉽게 접목하고 느낄 수 있게 함으로써 부동한 지역의 학생들에게 인공지능의 대문을 열어주게 된다.

/ 인민넷 - 조문판

图说
我们的
价值观

行善是福

天津大郑剪纸

中华有福

爱国
敬业
诚信
友善

自由
平等
公正
法治

富强
民主
文明
和谐

中宣部宣教局 中国文明网